

녹두꽃

2016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일 정 10월 6일(목) 09:30~18:00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
주 제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발굴·번역된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모두 9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전개양상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두칼럼
박명규, 서울대 교수

기획① 명사대담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기근, 참여자 이병환의 손자

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② 지역대담
경남 서부지역 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東學年 꿈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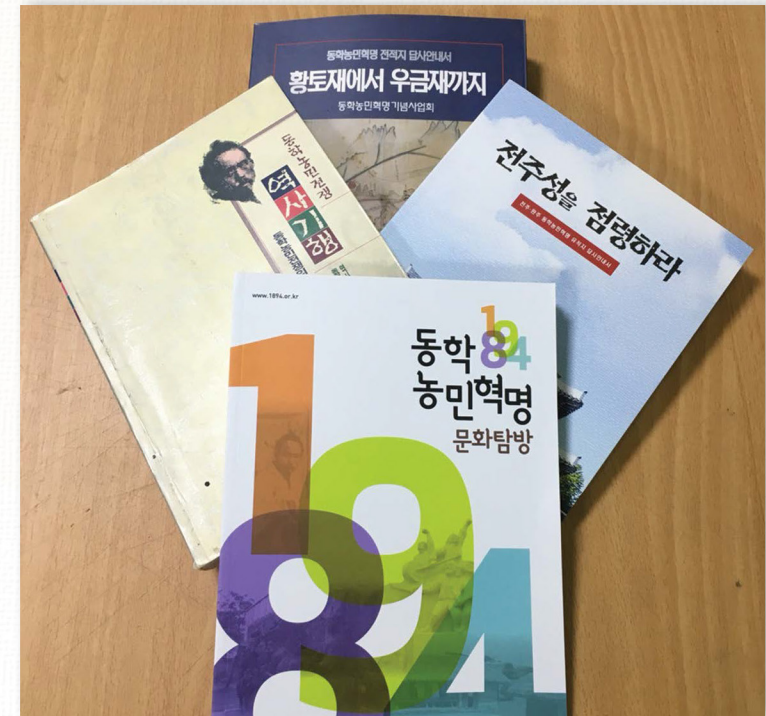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中孚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걸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漢拏에서 白頭까지
향그러운 흥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1967년 『52인 시집』을 통해 발표된 이 작품은 1960년대 동학농민혁명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태평양의 허브이자 동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있다. 19세기 태평양시대가 개막되면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군사적 긴장감이 드높았다. 신동엽 시인은 동학년(1894, 갑오년)의 참혹했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면서 반전평화(反戰平和)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 울림이 지금까지도 간절하다.

신동엽 申東葉 1930~1969, 시인. 충남 부여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 단국대학교 사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장시(長詩) 『이야기하는 정기훈의 대지』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아사녀(阿斯女)』(1963), 시극(詩劇)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이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금강(鎭江)』이 있다.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1975.

【편집자주】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1894년 이후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시 작품들 중에서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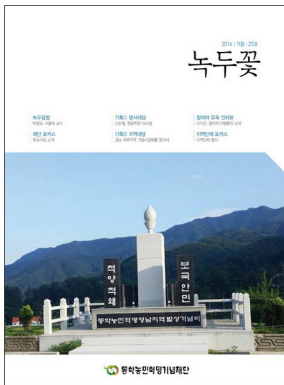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문화탐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5.
동학농민혁명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개과정과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한 관련 유적지와 주요 관광지를 자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답사안내서]이다.

『동학농민전쟁 역사기행』, 역사문제연구소, 1993.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현재적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집된 책이다. 전국에 분포한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찾아 그 역사성을 설명하고 유적지를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편집된 [답사안내서]이다.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4.
일반 국민들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높이고자 혁명 100주년을 기해 출판된 책이다.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 따라 그 유적을 고부권·고창권·전주권·남원권·익산권·공주권으로 구분, 편집된 [답사안내서]이다.

『전주성을 점령하라』,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13.
전주·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한 답사안내서이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되어 간행된 책이다. 동학농민혁명을 요약한 내용과 전주·완주권 관련 유적들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답사안내서]이다.

-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산동엽, 곱데기는 가라
- 04 녹두칼럼
박명규, 서울대 교수
- 06 포토토픽
3기 제1차 운영위원회, '장군천안전공지묘'발굴추진위원회
- 08 기획 1 명사대담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
- 17 재단 포커스
제1차 기념관 자문위원회, 주요사업 안내, 재단소식
- 20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기곤, 참여자 이병환의 손자
- 26 유적지 탐방
경남 서부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 34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 39 기획 2 지역대담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 47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 48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49 이 계절의 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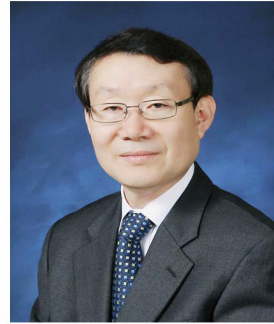


COVER STORY

동학농민혁명 영남지역 발상기념비

이 기념비는 2015년 10월 20일 경남 산청군 내 대마을에 건립되었다. 경남 산청군 내대마을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최초로 동학농민혁명군이 기포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창생과 시민



박명규 서울대 교수, 사회학

오래된 문건인데 현재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글이 적지 않다. 백여 년 전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백산창의문’ 역시 그런 자료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다”라는 이 격문을 2016년 가을의 시점에서 다시 읽으면서 새삼 ‘창생’이라는 말과 ‘창의(의를 든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 두 단어 모두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창생은 모든 생명을 뜻하는데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계의 모든 생명까지도 아우르는 의미를 담는다. 아마도 평범한 백성, 도탄에 빠진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에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다. ‘의를 든다’라고 번역된 창의라는 말도 요즘은 낯설지만 ‘의’라는 말이 오랫동안 사용된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논어의 ‘見利思義(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라는 가르침은 오랫동안 선비의 몸가짐이었고 안중근은 이 경구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스스로의 원칙으로 삼았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올바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담겨있기에 이 두 단어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못 생명이 행복한 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면 이런 단어에 별다른 공감을 느끼지 못할 터이다. 이 말에 공감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처럼 현재도 여전히 삶이 어렵다는 반증이라. 실제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은 가중되는데 신

뢰할만한 지도력이 보이지 않고 사회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낸다.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이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안팎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지금까지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의 가장들이 갑자기 다가온 고령화 시대를 불안스레 마주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화 속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말이 당연한 것처럼 회자되고 취업과 결혼이 최대 숙제가 되어버린 현실이 ‘창생’과 ‘창의’라는 말을 다시 곱씹게 만드는 것이겠다.

하지만 21세기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창생과 창의 사이를 연결할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창생이라는 집합명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개별성, 고유성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그 고리가 아닐까 싶다.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구체적인 개별자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개인을 무시한 전체의 상찬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생을 구하려는 마음과 개인을 보듬는 섬세함을 함께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유한 개성을 그 존재감의 기반으로 하는 이들을 시민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의 창생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늘 다양하고 대립적이며 불일치하지만 그 생동력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이다.

일제의 민족탄압이 극에 달했던 1940년대 초반, 운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패, 경, 옥 등 이국소녀들의 이름과 어머니를 불렀다. 아마도 그냥 민족애라든지 인류애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개개인의 존재, 그 고유함을 드러내고 싶었을지 모르겠다. 별을 주목한 것도 그 스스로 하나의 존재로 빛나는 개체, 한 인간의 존엄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창생이 시민으로 깨어나는 곳, 공동체와 개인이 어우러지는 곳, 온갖 풀과 꽃이 함께 피어나는 봄날 들녘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21세기 ‘창의’가 아닐까. 깨어난 시민들로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박명규 (朴明圭, Park Myoungkyu)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교수. 경남 함양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 199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연구분야는 역사사회학, 한국사회사, 남북관계론, 민족주의, 종교사회학 등이다. 육군사관학교와 전북대 교수를 역임했고, 미국의 하버드 인칭연구소 초빙연구원, UC 버클리 대학 초빙교수, UC 어바인 방문교수, 스탠포드 Humanities Center International Visitor, 독일 베를린 자유대 방문학자를 지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북한사회문화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 한국사회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창비, 2012),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한국근대국가형성과 농민] (문학고지성사, 1997)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1차 운영위원회



2016년 6월 2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기 제1차 운영위원회가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기념재단 운영위원 위촉식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016년도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나아가 주요 현안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將軍天安全公之墓’ 발굴 추진위원회



지난 7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將軍天安全公之墓’ 발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읍시 용동면 비봉리 산 17-2에서 전봉준장군 분묘와 비석으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발굴을 추진하게 되었다. 비석은 1m 크기의 화강암으로 ‘장군천안전공지묘(將軍天安全公之墓)’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발굴추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고문 이승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생기(정읍시장), 이기근(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추진위원은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8명, 조사위원은 송정수(전북대 교수) 외 5명 등이다. 추진위원회에는 향후 분묘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굴절과 부침이 그대로 투영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 중요한 디딤돌인 것 같습니다.

”

문병학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80년대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려는 기념사업에 몸담아오면서 전국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은 이래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회 심의위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는 물론이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나아가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1기, 제2기 때 이사도 맡으셨지요? 동학농민혁명과 보통 인연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요?

신순철 아마도 그때가 1989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신용하 교수를 주축으로 서양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기념사업을 추진 했지요. 그 중 꽤 규모가 큰 학술세미나가 열렸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학술대회 관련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도 멀지 않았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내게 『전북문화저널』(월간)에서 칼럼 원고청탁을 해왔어요. 그 당시 전북문화저널은 전북지역의 사회와 문화예술계 전반을 다루는 창간이 얼마 안 된 잡지로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이 잡지 창간에 깊은 역할을 했던 분이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전북대학교 이종민 교수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학농민전쟁 백주년을 준비하자”라는 칼럼을 쓴 것이 제가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발목을 붙잡힌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병학 네, 이사장님.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정리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1995, 동단협編)를 발간하면서 그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갑오농민전쟁 백주년을 준비하자”였고, 『전북문화저널』 1989년 6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신순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나요. 원고를 썼던 때가 짧은 장마가 지나간 직후였어요. 나중에 그 칼럼을 생각하면서 대중적인 지면에 발표하는 글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칼럼 때문에 30여 년을 동학농민혁명에 끈적없이 붙잡혔잖아요? 그 칼럼을 쓴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셈이지요.(웃음) 시기적으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서 1988년과 1989년은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칼럼이 게재된 이후 전북지역 대학교수 모임

인 ‘호남사회연구회’를 비롯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지요. 그해 9월 서울에서 활동하던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갑오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후 ‘백추위’)를 출범시켰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지역에서는 호남사회연구회 중심으로 1991년 1월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창립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칼럼을 쓴 죄값으로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준비위원회가 준비위원회를 거쳐 1992년 6월 13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 형태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를 창립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무총장, 이사 직무를 수행해왔으니, 벌써 30년이 가깝네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가 지금 전주에 있는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백주년기념사업회로 창립된 후 1년 만에 ‘백추위’를 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앞서도 말했듯이 1992년 6월에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은 당시 전라북도의회 김철규 의장님이 맡으셨지요. 이후 김삼룡(원광대총장), 조용술(목사), 한승헌(변호사) 세 분이 공동대표를 맡아 애를 쓰셨지요. 그러다가 단체임원, 회원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백주년 한 해만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백추위를 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로 문화체육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신청하였고, 1993년 7월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문병학 앞서 이사장님께서 1989년 칼럼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1994),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발견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봉환(1996.5),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건립(1996.10),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전지 규명(1998),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음악극 [천명] 순회공연(199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청원사업(2000),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2001.5), 삼례봉기 역사광장 조성사업(2001) 등등 참 많은 일들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학자로서 보람도 많았을 터인데, 당시의 상황들을 좀 떠올려주시지요?

신순철 문 선생 얘기를 듣고 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네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만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손해 본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한 적도 더러 있었지요. 예컨대 역사학자로서 역사 관련 연구서나 저작물 간행 등 개인적인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하지

만 다시 세월을 되돌려 그 상황이 오더라도 역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몸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예요. 불교적으로 생각하자면 전생에 내가 동학농민군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난 1980년대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아쉬움을 많이 느꼈지요. 그 아쉬움의 바탕에는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동학농민혁명 백추위를 맞닥뜨린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한국근현대사의 굴절과 부침이 그대로 투영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사업,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중세문명과 근대문명, 동양문명과 서구자본주의 문명의 중층적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동서냉전체제시기 등을 지나오면서 극심하게 왜곡되고 축소되어왔잖아요? 역사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변혁은 굴절과 부침이 심했던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일들은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문병학 그 때는 돈이 나오기는커녕 기념사업회가 전주에 있었으니까, 익산과 전주를 오가는 자동차 기름 값은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비, 사업회 실무자 활동비 등을 위해 적잖은 사비를 내놓으면서 기념사업에 헌신해오셨는데, 그래도 이후 특별법도 제정되고 해서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신순철 참 많은 분들이 기꺼이 후원금을 내주었지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무실 운영비는 충당했지만 간혹 모자란 운영비를 내놓아야 할 때도 더러 있었지요. 그렇지만 워낙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돌아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 단체 창립이 필요하다고 여겨 여기에 힘을 기울였던 일, 전국의 기념사업단체들을 한데 모아 [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 12.)를 결성한 일, 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고부봉기 역사맞이’ (1994. 2.), ‘백주년 기념대회’ (1994. 4.)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1994. 5.), ‘공주우금티 추모예술제’ (1994. 11.) 등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네요. 이밖에도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국내봉환(1996. 5.),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음악극 [천명] 전국 순회공연(1999. 11.), 한·중·일 삼국 역사학자들이 모여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주제로 펼쳤던 ‘국제학술대회’(2001.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 2.) 등등이 떠오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백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주년 기념사업은 대외적으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주최로 추진되었지만, 사업기획과 예산마련 등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 두 법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했지요. 백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 사업예산은 문화체육부가 국비 약 250백만 원을 지원해주었어요. 전주사업회 88백만 원, 민예총 150백만 원이었지요. 지금도 큰돈이지만 당시에는 더 큰돈이었지요.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백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문병학 그 때 이사장님께서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총장과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셨지요. 당시 제가 이사장님을 보좌하는 사무국장으로 일했는데, 정말 정신없이 보냈었습니다. 199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백주년 지난 후에 행사 팸플릿 등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했었지... 할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지금 그렇게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웃음)

신순철 그랬지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백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바탕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역사에서 백주년 기념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봐요. 1963년 10월 정읍 황도현 마루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고, 한국사 교과서에도 1970년판부터 '동학혁명'으로 기재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60~70년대 정치적인 분위기 등으로 '반란사건'이라는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1990년대 초까지도 팽배했지요. 이 사건을 대중적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각인시킨 기점은 역시 '백주년 기념사업'이었습니다. 그 결실이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큰 성과로 이어진 백주년 기념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등으로 변화된 우리 사회의 여건 변화와 한국사회 변혁을 바라던 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잘 맞아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마무리한 이듬해인 1995년 8월 3일 국내 주요언론에 “일본 북해도대학 옛 표본고(標本庫), 종이상자에 담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구 발견”이라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이던 한승헌 변호사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마침내 그 이듬해인 1996년 5월 30일 그분을 국내로 모셔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골봉환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셨고, 봉환이후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골연구조사위원회'위원장직을 맡아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분을 국내로 모셔온 지 올해로 꼭 20년째인데 아직 그분을 안장해드리지 못하고 있지요? 이점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신순철 그 분을 아직 안장해드리지 못한 일은 정말 사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120여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장례(葬禮)를 치러 영면에 들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후손된 도리를 못하고 있어서 죄스러울 따름이지요. 1894년 겨울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후 뒤쫓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전라도 서남해안으로 밀리지요. 그렇게 해서 전남 진도까지 후퇴합니다. 일본과 조선정부 연합군은 동학농민군을 섬까지 쫓아가서 붙잡아 처형을 합니다. 아마 이분은 그 무렵, 그러니까 1895년 1~2월경 붙잡혀 처형, 효시된 후 진도군 송현리 송치고개에 유골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골을 조선총독부시절 1906년 일본인 사토 마사지가 식민지 지배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인골학연구'의 자료로 끌려고 북해도대학으로 반출한 것 같아요. 일제의 이런 행동은 정신대다 강제징용이다 뭐다 해서 산사람을 끌고 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인도적인 만행이지요. 어쨌거나 이분 유골이 발견된 후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일본 외무성과 북해도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국내봉환을 요구했고, 그 결과 1996년 5월 30일 국내로 모셔올 수 있었지요. 모셔온 후 영면하실 수 있도록 장례를 치루고 안장을 해드리고자 했으나 이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이분의 신원확인을 위한 연구조사에 착수했지요. 연구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DNA검출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유골이라 그 신원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출한 DNA 분석을 통해 “3~40대 몽골로이드인, 남성”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는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이분의 장례를 치루는 일이 차일피일 지연되었고, 그 사이 몇 차례 안장을 추진하였으나 그때마다 여의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병학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안장을 해드리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안장을 추진했었지요? 맨 먼저 그분의 유골을 수습해간 장소였던 진도군 송현리에 안장하고자 박맹수 교수가 연구보고서도 냈습니다만, 그 당시 진도군 측은 유골이 진도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로 들어와 또다시 진도군과 두 차례 안장 협의를 했으나 진도군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안장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



지요. 그 뒤 정읍 황토현전적지, 김제원평 구미란전적지 등에 안장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안장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지요. 다행스럽게 전주시에서 2년 전부터 이분의 안장을 위해 완산전투지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신순철 작년, 그러니까 2015년 늦은 가을이었던가? 전주시에서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용역] 발주하였고, 그 중간보고를 한다고 참석을 요청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석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후 그 이튿날부터 5월 3일까지 전주성밖에 완산칠봉 등지에 진을 친 초토사 홍계훈 부대와 격전을 벌입니다. 이를 역사학계에서는 완산전투라고 하는데, 특히 5월 3일 전투에서는 동학농민군 500여명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때 전사한 동학농민군을 집단으로 매장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요. 아마도 완산칠봉 끝자락 어디쯤일 텐데, 이런 면에서 전주 완산공원에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이곳에 지도자 유골을 안장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지요. 특히, 전주시가 기념공원을 조성하려는 곳은 완산칠봉 자락에 세워져 있는 전주임성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이고, 이곳은 전주한옥마을과도 직선거리로 800미터 안팎이라고 합니다. 전주한옥마을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연인원 수십만 명을 넘는다고 하니 이곳에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지도자 유골을 모시고, 그 역사성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문병학 네, 어서 이분을 안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국내로 봉환해오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던 한승헌 변호사님이나 당시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하셨던 이사장님께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슴 속에 큰 짐으로 자리하고 있을 터인데...

신순철 그래요. 그분께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후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 많이 죄스럽지요. 내가 1998년 여름 암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주변의 지인들은 물론이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준 덕분에 인지 암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술을 받고나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문득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분을 모셔온 후 안장해드리지 못했다고 혼을 내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문병학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니 머지않아 영면하실 수 있도록 안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백주년 기념사업과 이후 전개된 기념사업 전개과정들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을 들으면서 진짜 이사장님은 전생에 동학농민군이었나? 이런 생

각이 스치네요.(웃음) 이사장님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북에 오셔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오신 것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인연이 아주 깊다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신순철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나도 해본 적이 있어요.(웃음) 나는 경북 안동 출생인데,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입학하기 위해 말 그대로 불원천리 전북 익산으로 왔지요.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역사에 관심이 많던 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 입학했지요. 여기에서 강만길 선생님을 뵈게 되었고, 이후 원광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한국근대사를 가르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만났지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진 특성을 불교에서는 전생 습관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 여러 생의 업보라고 하지요. 예전에 교무님들이 나나 박맹수 교수를 '전생의 동학군들'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일본공사관기록』을 읽으면서 동학농민군 대둔산 전투상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인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어왔지요. 그러던 차에 암수술을 하게 되었고, 암수술을 하고 퇴원한 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인근의 작은 산들을 다니다가 문득 동학농민군이 대둔산에서 항전했던 유적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대둔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가에서 매점을 하는 김규환 할아버지께 물어봤는데, 대둔산 서쪽에 미륵바위가 있는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곳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미륵바위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 위쪽 바위만 확인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바위 뒤쪽으로 돌아서니 커다란 바위 위에 돌을 가지런히 쌓아놓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여기다! 싶은 생각이 번개처럼 들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바위를 기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보니 비스듬히 걸쳐있는 바위 아래에서 웅기파편과 탄피가 노출된 채로 100년 전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를 발견하기 몇 년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대구에서 익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 대둔산을 지나오면서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도로 끝에서 간신히 차가 멈춰서 큰 사고를 모면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차를 세워놓고 속으로 '대중사님께서 살려주셨나? 아니면 농민군이 도우셨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사고현장이 이 유적지 골짜기의 끝이더라고요.

문병학 그러니까요. 듣고 있는 저도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하네요. 저도 눈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동학농민군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차를 막아준 거 같네요. 일본 북해도대학에 방치되어 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하는 문제 등등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 하라는 뜻인 것 같네요.(웃음) 이사장님 오랜 시간 좌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근년 들어 일본의 아베정권이 평화헌법 제9조를 개헌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혈안이 된 채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가 하면, 우리나라 독도를 두고 억지를 쓰고, 일본 북해도 위쪽 러시아 경계인 쿠릴열도에 군사력을 배치한다는 등 동북아시아 정치정세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1894년 갑오년의 역사의 갈피갈피를 찬찬히 살피서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잘 타개해나갈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19세기말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현재적 교훈이랄까 이런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철 아직도 120년 전의 동북아 구조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남과 북이 각기 해양과 대륙의 어느 한쪽에 서버리니 구한말 열강의 각축 속에 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무엇을 자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북한의 핵무기를 놓고 일부 언론은 핵무기를 두고 무슨 협상이냐 하는데, 핵을 무기로 제압하려고 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군비경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지요. 산둥반도나 요동 쪽에 사드에 상응하는 군사시설이나 전력을 증강하지 않겠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또 이를 넘어서는 무기배치가 필요할 것이고...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한반도에서 각축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핵무기가 한반도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각종 최정에 무기가 배치된 곳이 우선적인 타격 대상이 되는 거지요. 결국 피해 볼 사람은 남,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비경쟁과 전쟁으로 남북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6.25때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도 남·북간 대립을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예나 지금이나 주변의 열강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민족동질성에 호소하고,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공통분모로 해서 남북한이 단결해서 스스로 살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길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기도 하구요.

문병학 이사장님 오랜 시간 좌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7월 7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2016년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가 개최하였다. 안건으로는 2016년도 하반기 기획전시 추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조성 학술용역 추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위탁 재계약 추진, 2017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주제 논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물구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원직무연수

지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동학농민혁명 주제 강연과 유적지 답사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교원직무연수]를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제 강연은 신순철 역사학자(원광학원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 122년 다시보기', 백승중 교수(한국기술교육대)의 '조선 후기 민중의식과 동학농민혁명', 김양식 박사(충북발전연구소)의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 서술', 이이화 역사학자(전 역사문제연구소장)의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 이병규 부장(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사진으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등 다섯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편, 유적지 답사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 지역인 정읍, 부안, 김제지역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2016 을지연습 계기 비상소집훈련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8월 22일(월)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에서 2016년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 비상소집에 임한 전체 직원은 '비상대비 업무 매뉴얼에 따른 점검 훈련', '안보 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 안보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將軍天安全公之墓' 조사·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8월 2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관한 [장군천안전공지묘(將軍天安全公之墓) 조사·발굴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김생기 정읍시장,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의 '將軍天安全公之墓 발견 경위와 관련 내용', 송정수 전북대교수의 '將軍天安全公之墓의 주인공은 전봉준 장군인가'라는 주제발표 이후 추진위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 날을 기해 기념재단은 매월 공연과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2016년 8월~12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기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에서 진행한다.

- ◎ 일 시_ 매달 마지막 수요일 18:30 (프로그램에 따라 1~2시간 소요)
- ◎ 입장료_ 무료
- ◎ 월별 프로그램 안내

| 구분 | 일시 | 행사내용 |
|------|-------------------|-----------------------|
| 영화상영 | 08. 31.(수) 18:30~ | 영화 / 국가대표1(2009년) |
| 문화공연 | 09. 28.(수) 18:30~ | 공연 / 녹두향, 소리와 몸짓으로 빛다 |
| 영화상영 | 10. 26.(수) 18:30~ | 영화 / 울지마 톤즈(2010년) |
| 문화공연 | 11. 30.(수) 18:30~ | 공연 / 녹두의 딸, 옥이 |
| 영화상영 | 12. 28.(수) 18:30~ | 영화 / 오즈의 마법사(2012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환의 손자 이기곤

Q 회장님 반갑습니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직을 맡고 계셔서 많이 바쁘시죠? 먼저, [녹두꽃] 독자를 위해 간략하게 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곤입니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훌륭한 점도 없는 제가 2년 임기의 전국유족회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웃음) 전국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사업단체 관계자나 또는 해당지역 기관의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족분들을 만나서 유족회의 전망 등을 모색하고 그러느라고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Q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펼쳐지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만만치 않죠? 사계절 내내 사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많은 행사들에 참가하려면 시간이나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는지요? 힘들면서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서 보람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A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들이 결국은 갑오선열들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일환이니 어렵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기념사업이나 행사들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지요.

역사라는 수레바퀴 속에서 갑오년 선조들께서는 역사에 온몸으로 답을 하셨고, 후손인 우리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선열님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신 선양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빠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이루어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흘러 저 세상에 갔을 때 조상님들 뵈면 면목이 생길 테고, 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갈 후손들에게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반란군으로 매도당했다가 110년 만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기념사업단체들이 추진해온 기념사업은 그런대로 지역단체 여러분들이 헌신한 덕분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특별법에 규정된 동학농민혁명군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 큰 걱정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쳤는데, 그래서 오늘 평등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는데 그분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더디게 추진되어서야 되겠어요? 갑오선열님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사업] 등이 도무지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속히 이런 일들이 마무리 되어 우리 조상님들께 예를 갖추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Q 조사된 자료를 읽어보니 회장님 조부 이병환, 그리고 그분의 형님이신 이병기 두 분 형제가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당시 상당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이 병자 환자 그분이 제 할아버지이시고, 할아버지 형님 그러니까 제 큰할아버지가 이 병자 기자입니다. 이병기 큰할아버지가 일찍부터 동학에 들어가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보통 한 고을이 십여 동네가 되는데, 증조할아버지가 그 고을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전답, 그러니까 논과 밭은 물론이고 산도 아주 많이 소유하셨다고 해요. 그런 부잣집 장손이 바로 큰할아버지이고, 그 동생이 바로 제 할아버지입니다. 큰할아버지는 한학에 조예가 깊으셔서 남쪽에서는 큰할아버지의 한학을 따라 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할아버지께서는 산에다 돌성(石城)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지역인 나주, 보성, 장흥, 무안 등지에서 수백 명씩 모아 한학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곳을 ‘당산몰’이라고 하는데 ‘당산몰’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후손들,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당산몰’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큰할아버지께서 ‘당산몰’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북지역의 동학 지도자들과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동학농민군에 들어간 할아버지는 형님의 심부름으로 정읍과 고창 등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갑오년 당시에 최경선 장군이 광주, 능주, 화순, 나주 쪽을 관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할아버지는 주로 최경선 장군과 연락하면서 일을 했고, 전봉준 장군하고는 선이 닿은 흔적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동학농민혁명 때 할아버지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을 찾아보니 능주로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의 화순이 능주와 동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후 일제강점기 때 능주와 동북이 화순으로 통합되었지요.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큰할아버지가 물려받았는데, 논을 팔고 산을 팔아 동학에 자금을 나르다보니 그게 동이 나버렸어요.

1894년도가 되면서 농민군이 봉기하고 전투가 벌어지자 할아버지가 동학농민군으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능주 지역장으로 화승총까지 메고 다니시면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화승총은 100명 중에 한명 정도만 가지고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 같은 보통 총이 아니다 보니 힘이 안 좋은 사람은 화승총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전투에 임하여 최경선 장군과 우금치전투까지 참여하고 후퇴를 같이 해서 광산, 나주, 남평, 능주를 거쳐서 동북까지 피신했다고 해요. 그 때 후퇴해온 최경선 장군 부대가 270여명이었는데 동북에서 추격하는 일본군과 다시 전투가 벌어져 240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동북에서는 하루 저녁 사이에 140여명이 죽었어요. 능주(화순)역사에도 나오는데 이장 오씨가 남면 사평리에 동학쟁이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밀고를 했어요. 140여명이 하루저녁에 죽고 나머지 130여명이 남아 있는데, 양한묵 선생이 동학농민군을 살리기 위해 큰일을 하셨어요. 관군 대표를 불러서 내일 아침이면 어차피 일본군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기 때문



에 그냥 보내주자고 설득하여 빼들었다고 해요. 양한묵 선생이 원래 화순분인데 해남에서 성장하고 고향으로 와서 세무관을 지냈어요. 동학농민군을 위해 큰일을 해주신 양한묵선생 기념비를 화순군청 입구에 모시는데 저도 앞장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Q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방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동학쟁이 후손이라고 불리며 멸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동학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주로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A 오홍섭씨라고 어릴 적부터 위아래 동네에 살고 친하게 지내던 할아버지 선배님이 계세요. 할아버지는 난리가 나고 겨우 살아남아 화순군 춘양면 월평리 오홍섭씨 집에서 머슴으로 위장하여 정착하셨다고 해요. 새벽에 화승총을 메고 동북에 있는 외가로 숨어들어 오셨는데, 외가니까 고발을 하지 않고 뒷방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지내다 오홍섭씨의 집에서 머슴으로 위장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깎담살이’라고 했는데, 오홍섭씨가 외가에서 은신하고 본인에게 와서 ‘깎담살이’를 하면서 정착하라고 그랬대요. 이런 이야기를 저희 할아버지는 전혀 안하셨는데 오홍섭씨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동학군이었는데 화승총을 메고 일본군을 때려잡은 사람이라고 하

시면서, 일본군하고 싸우다 겨우 살아서 우리 동네에 피신을 시켜서 너희 할아버지가 결혼도 하고 너희들도 낳은 거라고... 주로 마을회관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우리에게 안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이장이 친일파였는데 우리를 ‘동학쟁이’라 몰아붙이고, 팔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지은 사람처럼 서럽게 숨죽이고 사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더욱 안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찍 해방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만 난리 속에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사실은 오홍섭 씨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Q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중에서 회장님께서 임기 중에 꼭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사업과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제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갑오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다함께 기릴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이 되어있지요. 행정자치부로 넘어가 국무회의에서 반려가 되면 재신청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진으로 역사학계 자문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부 부처에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맡겨 놓고 기념공원 조성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기념공원이 빨리 완성돼서 갑오선열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묘역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빨리 모셔야하고... 그래야 성묘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쟁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Q 회장님께서 기념행사 때 축사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반란군 후손으로 몰린 세월의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렇게 말씀 중에 울컥~ 하시나 그런 생각에 저 또한 가슴이 먹먹해졌었는데, 회장님의 바람대로 모든 국민들이 갑오선열을 기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념재단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제가 몇 군데서 축사를 하다가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바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창 무장기포 기념제 때와 장성 황룡전투 승전기념식 축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긴 세월을 반역자

로 몰렸다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명예회복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선양하는데 있어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분들이 반란군으로 몰리면 누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이점을 늦었지만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가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바로 알고, 후세에 제대로 알려야 그 역사에서 배워서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가가 튼튼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요? 선조들의 의를 기리자고 제정된 법률에 정해진 정신선양사업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서부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 ①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말 한반도에서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중세문명과 근대문명의 중층적인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일대 사변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화로 상품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인류는 역사상 유래 없는 거대한 변화를 맞았다. 특히,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선박(船舶) 제조기술과 항해법(航海法) 발달, 무기산업의 발전으로 제국주의가 출현하여 세계사를 격동시켰다. 조선은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소수 문벌(門閥)에 의해 중앙권력이 독점된 세도정치라는 비정상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통치질서가 붕괴되고 있었다. 이로써 당시 농민들은 삼정문란(三政紊亂)으로 통칭되는 조세수취제도의 폐단에 따른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렸다. 여기에 일제와 서구 열강의 노골적인 국권침탈과 경제적 수탈이 더해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도탄(塗炭)으로 빠져들었다.

세계사적인 격동과 국내정치의 혼란은 수많은 농민항쟁을 불러왔다. 경남 서부지역은 조선후기 농민항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진주민란'(임술농민항쟁)의 발상지이다. 진주농민항쟁은 1892년(철종13) 임술년(壬戌年) 2월 4일 진주에서 시작되어 곧바로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 전국 70여 고을로 확산된 일대 사변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영남지역 발상 기념비

| 경남 산청군 내대리 |

산청군 내대리는 1894년 4월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최초로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역사적인 곳이다. 2010년 11월 천도교인들이 경남 서부지역 유적지 답사를 하면서 <기념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4년 9월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호)가 출범하여 각계각층의 정성과 후원을 모아 2015년 10월 20일 현재의 위치에 기념비를 건립·제막하였다.



■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 ②

경남 서부지역에 도저하게 흐르던 농민항쟁의 역사적 전통은 한 세대 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때 다시 한 번 크게 용솨음쳤다. 1894년 정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나자 경남 서부지역에서도 1월 12일 함안, 16~17일 사천, 3월말 김해 등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했고, 4월 초순에는 진주 덕산(德山, 現 경남 산청군 시천면)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동학교단의 대접주 백낙도(白樂道, 道弘)를 주축으로 농민항쟁의 횃불이 올려졌다. 이후, 갑오년 6월 21일 일제가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친일내각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부산에서 경북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구간에 병참부를 설치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자 동학농민군은 7월 15일 남원대회 등을 통해 항일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9월이 되자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금구(現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서 내려와 순천(順天)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세력을 떨치던 김인배 대접주의 지원을 받아 하동부 점령, 진주성 점령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했다. 9월 14일 손은선이 이끄는 진주지역 동학농민군은 관아를 쳐들어가 옥문을 부수고, 100명 혹은 1,000명씩 무리를 지어 보수적 활동으로 일관하던 옥천사를 공격하였다. 또 9월 15일에는 여장협(余章協)이 이끄는 하동지역 농민군 수천 명이 곤양 읍성으로 들어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사천·남해·고성·곤명 등지를 휩쓸었다.

이렇게 세력이 강성해진 동학농민군은 9월 17일 마침내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부인 진주성을 점령하고, 이튿날 영호대접주 김인배 장군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진주성에 들어와 질청(秩廳, 또는 작청作廳)에 대도소를 설치하였다. 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성 둘레에 오색 깃발을 내걸었고, 성루 맨 앞 큰 깃대에는 붉은 색 바탕에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고 쓴 대형 깃발을 내걸었다.

진주
동민항쟁
기념탑

| 경남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349-4번지 |

이 기념탑은 2012년 6월 24일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제막하였다. 1962년(철종13) 임술년에 일어난 이른바 '진주민란'(진주농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참여자 후손들을 위무하고자 건립되었다. 1862년 2월 14일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 70여 군현으로 확산된 진주농민항쟁은 조선 후기 조세수취제도의 문란(紊亂) 등에 따른 경상도우병사 백낙신(白樂莘)의 가혹한 수탈에 저항한 조선후기 대표적인 농민항쟁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 조선이 개항한 이후 일본과 청나라,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가속화하면서 농민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런 속에서 1880~90년대 전국에서 수많은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그 정수(精髓)라고 말할 수 있다.



■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 - ③

동학농민군이 경남 서부지역을 휩쓸며 실질적으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세력을 떨치던 무렵 경북지역 동학농민군도 일본군 낙동강병참부가 설치된 지역(예천·상주·선산 등)에서 위력을 떨쳤다. 이에, 일제는 조선 정부군과 관군을 끌어들이 9월 24일 부산과 대구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일본군을 경남 서부지역으로 배치하여 동학농민군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서부지역 곳곳에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10월 중순에 벌어진 곤양 금오산전투, 10월 14일 진주 수곡의 고승산(高僧山) 전투를 그 대표적인 전투로 들 수 있다.

이처럼 1894년 10월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군은 순천·남원·구례지역 동학농민군 지원을 받아 대구와 부산에서 파견된 일본군·관군 연합부대와 수차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 4~5천여 명은 10월 14일(양력 11. 11.) 진주 수곡면 고성산(高僧堂山)에서 일본군 대위 스즈키가 이끄는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으나 일본군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고성산전투 이후에도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군은 하동 갈록치(渴鹿峙)와 고하 등지에서 일본군에 저항하였으나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진주, 대도소 (大都所) 터

| 경상남도 진주시 평안동 111번지 |

전라도 순천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세력을 떨치던 김인배 장군은 1894년 9월이 되자 하동부와 진주를 공격하였다. 하동부를 장악한 동학농민군은 9월 17일 진주성마저 점령하였다. 진주성을 점령한 이튿날 김인배 장군은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진주에 들어와 질청[秩廳]에 대도소를 설치하였다.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이 대도소를 설치했던 진주성(晉州城)의 질청[秩廳]은 현재 '보리한의원' 자리이다. 질청은 관청의 부속 건물로 지방관청의 육방을 비롯한 하급 관리들이 사무를 보던 곳이다. 작청(作廳) 또는 연청(椽廳)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옥천사 (玉泉寺)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

-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주지역 농민군들이 공격하였던 사찰.
- 경상남도 기념물 140호
- 동학농민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옥천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화엄전교 십찰>의 하나로 창건된 절이다. 조선후기에 옥천사는 부찰(富刹)이었다. 사찰답 800여 두락을 인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5:5의 비율로 도지(斗)를 받으면 1,000석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산도 560정보로 산지기가 5~6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진주의 대찰 옥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진주의 권문세가들이 시주하여 불사를 일으킨 일이 많았고, 진주목과 경상우도의 감영·삼도수군통제영·고성현 등 관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옥천사는 1862년 진주농민항쟁 때 탐관오리들의 세곡미(稅穀米) 수탈에 반발한 진주농민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또한 1894년 9월 14일 경상감사가 올린 「장계(狀啓)」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때로 옥천사가 공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동군
동학혁명군
위령탑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산66-15, 산66-1, 북방리 산 13-30 |

▣ 경상남도 기념물 제142호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서 있는 고성산은 1894년 10월 14일 영남과 호남지역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맞아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전적지이다. 이곳에 건립된 위령탑은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던 이곳 고성산성 일대 임야 500평을 매입하여 1995년 11월 11일 제막하였다. 하동군은 40백만 원을 들여 2007~8년 [고성산성의 역사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 9월 현재 [고성산성 성역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동군은 향후 이곳에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전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주농민항쟁 기념탑 안내문

조선시대 말기에 조세제도가 문란해지고 수령과 아전의 비리와 토호의 수탈이 심해지자 이에 대해 주민들이 장시를 철거하고 집단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진주농민항쟁은 1862년 2월 14일 덕산장 공격을 계기로 진주목 전 지역으로 확산되다가 2월 23일 농민군이 해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 항쟁의 핵심세력은 농민, 그중에서도 초군(樵軍)이었다. 이 항쟁을 이끌었던 지도자로는 양반 출신인 류계춘 등이 있었다. 이 항쟁을 계기로 농민항쟁은 삼남지방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단순히 수탈에 대한 불만에 의해 폭발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그 밑바닥에는 당시의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운동의 흐름이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층의 사회운동은 더욱 거세어져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지고 이어 일제시기 농민운동으로 발전해간다. 이 탑이 세워진 곳은 당시에 수곡장이 서던 곳이다. 무실(수곡)장터는 항쟁이 시작되기 전인 2월 6일 많은 대중들이 도회(都會)를 열어 항쟁의 방향을 철시와 시위로 결정하고 이 여론을 주위로 확산시켜 나간 중요한 곳이다.



참고자료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특징』,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 순천대학교 지리산권 문화연구원편, 2014.
 김준형, 『서부 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慶尙史學』7·8, 경상대학교 사학과, 1992.
 이이화, 『대접주 김인배 -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푸른역사, 2004.
 임형진, 『동학초기 경상도 일대의 포조직과 혁명군 지도자 연구』, 『동학학보』제35호, 2015.
 표영삼, 『경상 남서부 동학혁명』, 『교리사연구』제6호, 천도교중앙총부, 200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2011.

기념관 방문단체



| | |
|-----|-----|
| 1-1 | 1-2 |
| 2-1 | 2-2 |

- ① 7월 12일, 황산초등학교 1~6학년 학생 및 교사 39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녹두씨앗심기' 등의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② 7월 16일, 목포대·무안고·해제중학교 학생 및 교사 38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을 답사한 후 장성-고창-정읍-부안 일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 | |
|-----|-----|
| 3-1 | 3-2 |
| 4 | 5 |

- ③ 7월 16일, 휘문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을 돌아보고 정읍-부안 일원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④ 7월 26일, 청소년 동학캠프 학생 및 교사 21명이 기념관에 방문하였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군이 주최하고, 책마을해리가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전북,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함께 하였다. 무장기포지, 진봉준 생가터, 손화중 도소, 선운사, 고창읍성, 무장읍성 등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및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 ⑤ 7월 27일, 진봉준역사캠프에 참여한 80명의 청소년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주관한 진봉준역사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개최하고 있다.

기념관 방문단체



기념관 방문단체

| | |
|---|---|
| 6 | 7 |
| 8 | 9 |

- ⑥ 7월 27일, 중국 신둥성 고교 교사 8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⑦ 7월 28일, 전국노동조합에서 28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방문하였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해설을 듣고 방명록에 '역사의 현장이 왜곡되지 않고, 현실을 알리는 학습의 장이 되길'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 ⑧ 8월 5일,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학생 25명이 하계세미나를 맞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⑨ 8월 6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중고등학생 및 교사 36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을 관람한 후 '큐레이터란?'의 주제로 진로탐색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 |
|----|----|
| 10 | 11 |
| 12 | 13 |

- ⑩ 8월 1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에서 중등교사 30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을 돌아보고 동학농민혁명 진격로 및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 ⑪ 8월 19일, 전북도립미술관 직원 20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⑫ 8월 31일, 김제 해바라기유치원에서 어린이 48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⑬ 9월 1일, 안산시 희망마을 사업추진단 48명이 수련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관 방문단체



| | |
|----|----|
| 14 | 15 |
| 16 | 17 |

- ⑭ 9월 2일, 화성시 마을 만들기 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⑮ 9월 3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임원 및 회원, 아카데미 수강생 37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⑯ 9월 8일,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 및 교수 83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 ⑰ 9월 9일, 포항 항구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28명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찾아서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일시 2016년 7월 27일
장소 공주대학교 세미나실
대담 심국보 |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갑선 |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안녕하세요. 『녹두꽃』 가을호 지역대담을 경남 서부지역 두 단체 임원을 모시고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갑선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 옥종면 북방리에 살고 있는 고성산동학혁명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갑선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기념재단에 감사드립니다. 하동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호남과 영남지역 농민군이 연합하여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건립된 [동학혁명군위령탑]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국보

반갑습니다. 저는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심국보라고 합니다. 산청은 경남 서부지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기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록들을 검토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위령탑도 세우고, 우리 지역 동학혁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전개된 반봉건항쟁이자 반일 민족항쟁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1862년 진주에서 시작된 임술년 농민항쟁으로부터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후기 봉건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농민항쟁의 역사적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오던 곳이지요? 이후 1894년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때도 치열하게 농민항쟁이 전개된 고장인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국보

동학농민혁명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1880년대는 물론이고 1894년 갑오년 때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남 산청 내대리에서도 1894년 4월 백낙도 접주가 중심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직 세력이 강성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기포 초기에 진압되어 백낙도 접주 등 중심인물이 처형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 2차 봉기 때는 진주 인근의 동학농민군과 호남의 동학농민군이 연합하여 진주성을 함락하기에 이릅니다.

정갑선

9월 2차 봉기에 하동과 진주의 동학농민군이 광양·순천의 동학농민군과 함께 하동부를 공격하여 점령해버렸습니다. 경남 서부지역 농민군은 인접해 있는 광양·순천의 농민군과 연계를 가지며 활동했지요. 9월 17일에는 하동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진주로 진격하여 관아를 점령했고, 그 다음날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입성함으로써 진주는 그야말로 동학농민군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이렇듯 경남 서부지역에서도 동학농민군 위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말 관군과 일본군이 밀고 들어오면서 전세가 급박해졌고, 10월 14일 하동 고성산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일본군의 우세한 무기 밀려 패퇴하였습니다.

문병학

경남 서부지역의 기념사업회가 설립된 경위와 그동안 추진해온 정신선양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정갑선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기념해서 경남 서부지역에 계신 천도교 교인들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성금을 모아 하동 고성산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는 고성산동학혁명기념사업회와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별개 단체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성산사업회에서 산청사업회가 분가를 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산청은 고성산기념사업회에서 함께 활동해오다가 2014년 9월 19일 별도 단체로 분가하여 창립했습니다. 2011년엔가? 천도교 진주시 교구에서 인내천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그 때 산청의 동학이야기가 나와서 관심을 가졌어요. 김준형 교수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서 산청군 지역민 50프로, 경상도 천도교인 50프로 이렇게 모여서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별도로 창립했던 것이지요. 기념사업회는 산청과 고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지만, 갑오년 4월 경남 서부지역인 산청 내대리에서 기포한 때로부터 10월 14일 일본군과 고성산전투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로 보고 정신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국보

경남 서부지역 중에서도 산청, 진주, 하동 일대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전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꼭 32년 전인 1862년에 일어난 이른바 진주민란(임술농민항쟁)이 진주의 수곡과 동학농민혁명 경상서부지역 발상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산청 내대리 덕산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산청이 진주에 속해 있을 때였는데, 진주민란이 발생한 지역과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청, 하동 지역에서의 동학농민군 기포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항쟁의 전통이 면면히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곳이지요. 이런 지역적 정신이 동학과 연결이 되면서 산청 내대에서 최초 기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진주 지역에서 하동 지역으로 옮겨져 오면서 호남지역의 동학군들과 연계를 가지고 갑오년 가을에 진주성을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청, 하동, 진주 등을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경남 서부의 동학농민혁명을 전체적으로 보는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산청군 내대리는 갑오년 당시 봉건제도 개혁과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경남 서부지역 최초 기포지이지요? 산청사업회에서는 내대리에 경남 서부지역에서 최초로 기포가 이루어진 그 역사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기념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심국보

산청 내대리에서 백낙도 접주를 중심으로 기포가 이루어진 것은 갑오년 4월초로 알려



심국보 | 사무국장

져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최초로 봉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정부의 부패한 관리들을 물리쳐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들어 올린 기치가 반봉건이었어요. 이렇게 경남 서부지역 최초로 반봉건 기치를 올린 곳이 산청 내대마을인데, 아직 세력이 강성해지기 전이라서 관군에게 진압되어 백낙도 접주 등 중심인물이 처형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산청 내대마을에서 이루어진 갑오년 4월 기포는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하동 고성산에는 20년 전에 동학혁명위령탑이 세워져 해마다 갑오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있고,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청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기포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비록 그 규모가 원대하지는 않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천도교중앙총부, 산청군 등과 협의하고 지역주민이 합심해서 건립하였지요. 산청 내대리 동학농민혁명 기포 기념비를 통해 산청이 경남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내대리 기포 당시 희생된 백낙도 접주를 비롯한 선열의 뜻을 기리는데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병학

제가 재작년에 전라도 순천과 광양, 그리고 고성산 동학혁명군위령탑 등지를 답사하면서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진주농민항쟁기념탑도 답사했었는데, 1862년 진주농민항쟁(임술년 농민항쟁) 기념탑은 산청이나 고성 쪽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세운 것인가요?

정갑선

그것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비가 아니고 진주농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해 건립한 위령탑이에요.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쪽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엔가? 진주농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령탑은 서 있는 위치가 산청군 덕산면 내대리와 하동군 고성산에 서 있는 위령탑과 딱 중간지점이에요. 이 지역이 진주시 수곡면인데, 옛날에는 큰 시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고, 그래서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임술년 진주농민항쟁도 이곳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학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 항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전국에 걸쳐 지금까지 건립·설치된 기념시설물 대부분이 반봉건 농민항쟁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반외세 민족항쟁, 다시 말하면 반일항쟁의 의미를 부각시킨 기념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성산을 ‘대일군전적지’(對日軍戰迹地)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갑선

네. 지금 고성산에 세워져 있는 위령탑에 왜군과 전투를 했다는 기록이 비문에도 새겨져 있고, 경상남도에서 세운 안내판 등에도 그렇게 기록해놓았습니다. 고성산은 현재 경상남도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문선생님 말대로 앞으로 경상남도나 진주시, 고성군, 산청군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반외세 역사공원



정갑선 | 사무국장

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1995년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한 후 매년 11월 11일 천도교중앙총부가 주최가 되어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동군에서도 행사를 규모 있게 치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갑오년 당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고성산전투 때 전사한 농민군이 186명이라고 일본군 측의 문서에 기록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찌 그뿐이었겠어요? 일본이 불법으로 조선에 들어와 농민들을 학살한 것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서 축소해서 적어놓은 것이겠지요. 실제로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의 후손이나 연로하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여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그분들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병학

경남 서부지역은 인근 전라도 순천에 영호도회소를 설치하고 세력을 떨치던 김인배 대접주 농민군과 강력한 연계를 통해 한 때 이 지역의 권력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정갑선

순천, 광양지역의 동학농민군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연대라기보다는 아예 하나가 되어 싸웠다고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군들이 진주 쪽에 와서 동학군 소탕작전을 펼 때 경남지역 농민군들은 산청군 수곡에서 후퇴하여 고성산 쪽으로 나가 진지를 구축하고 대항했는데, 일본군 신식무기에 밀리니까 순천, 광양 쪽에 지원을 요청해서 함께 싸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이 올해 122주년인데, 경남은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 비해 아직 대중적인 역사인식 확산이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이 대중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고, 관심 또한 많은 것은 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해서이겠지만 그 보다는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 활동이 대중적인 역사인식 확산을 견인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북 정읍에서는 1967년부터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전북지역에는 6개 기념사업단체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청과 고성산기념사업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향후 어떤 측면으로 기념사업의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요?

심국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기념사업은 주로 추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산청사업회나 고성산사업회는 현재까지는 대중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소규모적인 사업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많이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차차 기념사업회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기념재단에서 활성화된 전북지역이나 충청도지역 그런 곳보다 우리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도 지역에 국한된 자그마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문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20년 넘게 기념사업을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문선생님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경상도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갑선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대중적 인식이 낮아 참 안타까운데, 다른 지역 특히 전북 고창이나 정읍 같은 경우 행정기관에 동학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전개되었지만 2차 봉기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북한 쪽 평안도 이런 곳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북지역을 제외하고 타 지역은 아직 요원하다 싶어서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북지역 주민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에는 정읍이나 고창 등지에서 기념사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기념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회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은 위령식 한번 모시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고 기억에 남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경남 서부 지역의 사업회들이 연대를 해서 예를 들면 진주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를 열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이라 던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소규모로는 고성산동학혁명군 탑이 있는 옥종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옥종면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글짓기 등을 개최하여 우선은 지역민들에게 어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여기에 참여했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갑오선열들의 반봉건 반외세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선양한다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와 같은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병학

두 선생님들께서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주춧돌을 놓고 계시는데, 사명감이랄까? 역사적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으로 어깨가 자못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때부터 기념사업에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두 분 선생님의 노고에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20여 년 전과는 달리 그래도 지금은 <특별법>도 제정되어 그 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기념재단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에 30여 개가 넘는 기념사업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담을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못다 한 얘기라든가, 기념재단 혹은 전국의 기념사업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민간차원에서 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료를 찾는다는 거나, 사료를 발굴한다는 거나 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런 부분을 기념재단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쉬쉬 하던 시절이니까 쉽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유족 발굴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선양사업이 널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살자 했으면 그 당시에 누가 목숨 걸고 싸웠겠어요? 위대한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바로 한국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정신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심국보

기념재단에서 소식지를 통해 지역의 기념사업 단체와 만나 이렇게 좌담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전화나 문서로 주고받는 정보와는 다르게 실제로 기념사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기념재단에게 빈말이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대담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학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 분 선생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머지않아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활짝 꽃피 나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단체 포커스

제3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재창립준비위원회

지난 2016년 7월 8일~9일 경남 산청군 내대마을에서 [제3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 재창립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 임원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단협의 활동방향과 역할, 재창립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동학농민혁명영남지역발상기념비를 비롯한 경남 서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 월일(요일) | 언론사명 | 기사 제목 |
|----------|--------|---|
| 6월26일(일) | 전북일보 | 박영재 교수·김정완씨,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 |
| 6월27일(월) | 연합뉴스 | 동학농민혁명 유족이 유물 기증 |
| 6월27일(월) | 연합뉴스 | '동학혁명' 용어 언제부터 썼을까?…유족이 관련 유물 기증 |
| 6월27일(월) | 한겨레 | "동학혁명 용어를 언제부터 썼을까?" |
| 6월27일(월) | 뉴스1 | 동학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공개 구입 |
| 6월27일(월) | 전북도민일보 | 동학혁명기념재단 "유물 매입합니다" |
| 6월28일(화) | 연합뉴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물 구입키로 |
| 7월4일(월) | 스포츠월드 | 대동의 정신을 살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합의해야 |
| 7월5일(월) | 광주일보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물 매입합니다" |
| 7월6일(수) | 뉴스1 | '전주화약일' 논란에…문체부, 정읍·고창 의견수렴 |
| 7월6일(수) | 전북도민일보 | 문체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관련 의견수렴 |
| 7월6일(수) | 포커스뉴스 | "동학농민 기념일 전주화약일로"…문체부, '기념일 제정 발발' 초기 진화 나서 |
| 7월6일(수) | 전라일보 | 문체부'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 관련 단체 등 정읍시 의견수렴 |
| 7월6일(수) | 새전북신문 | 정읍시-문체부, 동학농민 국가 기념일 논의 |
| 7월6일(수) | 전북일보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문체부, 정읍·고창 방문…의견수렴 |
| 7월8일(금) | 광주일보 | 동학으로 맺은 인연 관광 상생 꽃피운다 |
| 7월15일(금) | 뉴스1 | 전주시, 청소년 역사문화캠프 '안녕 동학' 참가자 모집 |
| 8월2일(화) | 전민일보 | 고창군 청소년 동학캠프 |
| 8월3일(수) | 포커스뉴스 | 김제시, '동학농민운동' 소개 프로그램 운영 |
| 8월7일(일) | 전북일보 | 동학소설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원평집강소서 개최 |
| 8월11일(목) | 연합뉴스 |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방문한 김무성 |
| 8월11일(목) | 뉴스1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방문 |
| 8월23일(화) | 연합뉴스 | "녹두장군 묘일까"…동학혁명재단 '전봉준 추정 묘역' 발굴조사 |
| 9월1일(목) | 내일신문 | 진짜 '녹두장군' 묘 맞나 |
| 9월2일(금) | 연합뉴스 | 민(民)의 도시 전주, 동학혁명 재조명 '한창' |